

◎ 다음 주 기도/ 1부 박영지 선교사, 2부 박상귀 장로

오후 2:00

주일 오후 찬양예배

인도 : 홍순용 목사

교사 아카데미

경배와 찬양
목도
찬송
기도
성경봉독
찬양
설교
찬송
광고
합심기도
축도

페트라 찬양단
다 같이
다 같이
조범조 시무집사
인도자
제5여전도회
홍순용 목사
인도자
다 같이
홍순용 목사

◎ 다음 주 찬양/ 안나희, 사라희
◎ 다음 주 기도/ 황호준 시무집사

저녁 7:00

수요 밤 예배

인도: 양근모 목사

목도
찬송
기도
성경봉독
설교
찬송
기도
주기도문

다 같이
다 같이
정혜진 시무권사
인도자
양근모 목사
다 같이
인도자
다 같이

◎ 다음 주 기도/ 김진숙 시무권사

새벽기도회

오후 5:30 인도: 홍순용 목사
말씀: 시편 5권 강해

금요 밤 예배

오후 8:00 인도: 홍순용 목사
말씀: 학개 강해
특송: 제 3여전도회

예배 / 봉사위원					
3월	안내 및 헌금 위원	교회 정문	교회 후문	본당 입구	예배실
		배금환 시무집사	김형우 시무집사	문경옥 시무권사	정혜진 시무권사 노정미 시무권사
		계수 최현철 / 조범조	봉헌 1부 하상신 시무집사 2부 황호준 시무집사		

향기로운 예물

십 일 조	박상귀(변형남) 박승용(이경애) 윤대원(문선영) 이병희(김귀숙) 임한신(김진임) 홍순용(조세경) 문예담 신수남 양희순 윤주하 이 훈 장혜정 정민미 최임숙 최현철 한옥숙 허성은
감사헌금	김영만(김기옥) 김경희 김정선 김태욱 김행자 배삼례 이근복 이 훈 정민미 정춘수 홍순용
생일감사	김귀숙
선교헌금	김경희 김귀숙 김양심 김진숙 김진영 김홍길 문경옥 문선영 박승용 백홍자 신수남 심경선 오성만 이경애 이병희 이창준 이 훈 장경호 장혜정 천옥자 최수남 최임숙 한옥숙 허성은 홍순용 홍예준
건축헌금	김경숙 김귀숙 김양심 김진숙 김진영 문경옥 문선영 박승용 신수남 이경애 이병희 이창준 이 훈 장경호 최수남 최임숙 한옥숙 허성은 홍순용
장학헌금	한옥숙
증식헌금	김배영 김형우 이선영

※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: 농업 100051-51-074600 (예금주: 동산교회)
※헌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이번주 증식헌금

① 최시진 - 생일 감사
② 장시온 - 생일 감사
③ 조연우 - 생일 감사
④ 김윤희 집사(박유민 집사)님 가정 - 결혼기념 감사
⑤ 구현재 성도(이선영 집사)님 가정 - 구서연 생일 감사

[2024년 성경읽기]

1독: 장명숙 집사 (1독)	2독: 하명숙 집사 (1독)	3독: 김길자 권사 (1독)
4독: 박상철 장로 (1독)	5독: 노월선 권사 (1독)	6독: 박충렬 집사 (1독)
7독: 허성은 권사 (1독)	8독: 허성은 권사 (2독)	9독: 김홍길 장로 (1독)
10독: 유경연 권사 (1독)	11독: 김길자 권사 (2독)	12독: 김귀숙 권사 (1독)
13독: 김영광 장로 (1독)	14독: 정혜진 권사 (1독)	15독: 김진숙 권사 (1독)
16독: 문경옥 권사 (1독)	17독: 이병희 장로 (1독)	

주/간/말/씀

천국: 겨자씨와 누룩 비유
(본문: 마13:31-35)

이전내용:

우리는 이 세상의 밭에 예수님이 곡식을 뿌렸지만 원수가 가라지도 뿌려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, 추수 때 가라지는 불살라지고, 곡식은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

[문단나누기]

1.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 풀보다 커 []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(31-32).
2. 천국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[]과 같다(33).
3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하여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다(34-35).

[중심사상]

우리는 천국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많은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과 누룩과 같이 가루 서 말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성장하게 하는 것이며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냄을 알아야 한다.

[알게 된 사실]

1)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.
2) 겨자씨는 모든 씨 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.
3)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.
4)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.
5)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.

[적용하고 기도하기]

1.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 이천년 동안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고, 나 역시 천국 백성이 되어 그 나무 아래 깃들어 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.
2. 나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풍성한 확장을 통해 나 역시 천국의 비밀에 합당한 자로 전도하며 살아야 하겠다.
3.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,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게 하듯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믿고 인식하며, 이 세상의 나라의 성장이나 확장에 두려워 말고 천국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다.